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9월 13일 금성교회 주일에배설교]

본문 : 시 51:16-19 , 마 26:69-75

제목 : 애통하는 사람 · 위로하시는 주님(2): 베드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라”

말씀 :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 26:75)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
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막 퍼져나갈 때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프로그램이 힘들어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주었습니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자들을 떨어뜨리면서 마지막 7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열정을 다하여 부르는 노래 말 가사 한마디 한마디와 그들의 수준 높은 가창력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높은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무려 기적적인 약 38%의 시청률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반도를 트롯의 열풍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 당시 산정 호수를 산책했었는데 길가 상점에서 미스터 트롯에 참가한 가수들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심지어 산책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그들의 노래를 듣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 끝나자 다시 TV조선은 <사랑의 콜센터>라는 후속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보여준 성원에 감사하기 위한 보답으로 미스터 트롯 최후에 올라간 7명의 가수를 <TOP7>으로 부르면서 그들을 무대에 세우고 전국의 시청자들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가수로부터 듣고 싶은 노래를 즉석에서 신청하는 형식입니다. 원래는 14주만 진행하려고 계획했는데 시청자들의 성원이 커서 40주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 때 방영된 내용 중에 가슴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시작된 후 두 번째 주에 군산에 사는 27세의 정모 씨가 5월에 태어날 아기를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유산을 한 것입니다. 그 아픔으로 매우 힘들어 했는데 트롯이 많은 위로를 주었다고 하면서 김호중을 택해서 <초혼>이라는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초혼은 헤어진 영혼 사별한 영혼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저는 <초혼>하면 김소월 시인의 <초혼>시가 생각날 정도이지 이렇게 대중가요에도 초혼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가수 김호중은 자기도 이 노래를 처음 불러본다고 하면서 불렀는데 100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다보니 가사 어느 부분을 듣는 데 저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가사 말이 이리합니다.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난 띄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테니.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난 띄워 보낼 뿐이죠.”

그런데 이 가사말 이 부분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얼마나 사랑했으면 멀고 먼 세상 끝까지 따라가면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냥 입술로 따라 부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결혼이란 인생의 대사가 주는 스트레스 가중치를 50점으로 잡았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건은 자식의 죽음(74점)이며 다음은 배우자의 죽음(73), 부모의 죽음(66), 이혼(63), 형제의 죽음 (60)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상실의 아픔이 생각나서 그러합니다. 동감이 돼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눈물은 사람의 마음에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은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눈물을 흘리면 기분이 좋아진다. 2.해로운 호르몬(독소)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3.울고 나면 슬픈 감정 분노가 사라지면서 행복함, 감사함 또는 차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안구를 촉촉하게 만듭니다. 안구건조증 때문에 인공 눈물을 넣는 자도 많습니다. 5.눈물을 흘리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울고 나면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신체가 편안해지면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런 이유로 심하게 울고 난 후에는 몸이 더 가볍고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눈물이 주는 이런 세상적인 좋은 점보다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것은 눈물을 잘 보이도록 흘리면 보는 사람으로부터 전인적인 치료의 손길을 체험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치료와 마음적인 치료와 육적인 치료까지 체험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눈물을 흘리 때가 있으면 정말 잘 우는 모습을 잘 보일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

까? 우선 그 눈물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주님이 내 눈물을 볼 수가 있을 까요?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 몇가짓 핵심적인 자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시편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단의 책망을 듣고 밋세바와의 동침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시입니다. 당시에 제사법에 의하면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의 잘못을 소나 양에게 전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심에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16-17입니다. “16.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은 깨어진 심령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왜 내가 그랬을까 성찰하면서 하나님 내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면서 나의 이런 죄과를 용서하여 달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을 뉘우치면서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마음입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애통하는 자세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음도 상한 심령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큰소리쳤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자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와 함께 게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아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주님이 잡히

시던 날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가다가 주님 앞에 큰소리 친 것이 생각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날밤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계집종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도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말을 할 때 자기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마 26:74-75입니다. “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주인한 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란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때의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부인한 내가 밉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나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 싫습니다. 정말 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요?”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주 앞에서 찢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상한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전주에 애통하는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자탄하다>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탄하다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깨어지게 하는 가? 그런 마음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위로하여 주십니다. 미래형입니다.

2. 최악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까? 심한 경제적인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노력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이즈음 같이 코로나 19의 시대엔 외적인 요소들이 경제적인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운전하는 분 심방

을 갖습니다. 그분이 제게 “목사님 코로나19 대처하는 2.5단계만이라도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녁에 9시 이후에 상점들이 문을 닫으니 거리에 손님들이 아예 보이지 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삶에 아픔은 부모들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만듭니다. 어린 손녀딸을 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 세 살인가 되었을 때 변비가 왔습니다. 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할머니 할머니가 좀 손으로 꺼내 줄 수 없나요?” 그 소리가 할머니 가슴을 파 헤쳐 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소리에 저 어린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그 것을 생각하니 할머니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됩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자녀들로 인한 애통의 마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병은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죽을병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니 삶을 주변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 말고도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3.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때 애통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리되면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밖은 어디입니까? 헬라어로 밖은 <엑소>라는 단어입니다. <outside>입니다. 바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실패한 곳에서 빠져 나와 한 적한 곳을 말합니다. 주님만을 상대하는 곳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으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 거실에 들어가 낮을 벽을 향하고 기도 했습니다. 벽을 향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만을 상대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상한 마음을 쏟아 놓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보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목사님 한분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 가정에 심방을 갔습니다. 그 남편은 얼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

은 자매는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심방을 간 목사는 달리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매의 자기의 당한 고통을 다 이야기 한 후에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는 말했습니다. "주님께 아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 아뢰십시오.(you must tell Jesus)" 한동안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자매는 눈을 뜨더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예 예수님께 아뢰어야지요 (Yes I must tell Jesus ,Yes I must tell Jesus)" "

집으로 돌아온 목사는 여자가 말한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즉석에서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싸인 날 돌아 보사 내 근심 모두 말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으로 고통을 당한 자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습니까?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4.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손길을 믿으셔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위로가 옵니까? 우선 애통하는 중에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를 때 주님을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울지 말라." 기도 중에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의 소식을 줍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선지자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선하게 산 것을 돌보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을 살려달라고 나를 중년의 때에 데려가지 말게 해달라고 눈물 흘려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삶을 15년 연장시켜준다. 그리고 내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식을 못나서 브닌나에게 괴롭힘을 당

하면서 성전에서 울면서 애통의 기도를 하는 한나에게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라면서 위로의 소식을 주었습니다. 그 소식대로 한나는 태의 문이 열리고 사무엘을 낳았고 그후 다섯 남매를 더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받음을 통해서 심방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한 성도님은 삶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리 넓지 않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연약한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은 침해 기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일터를 돌보면서 정말 분주하게 힘들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에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누구야 네가 다 안다. 다 안다." 란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있다가 90세가 넘는 연약한 아버님은 평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연약한 아버님을 섬기던 십자가를 벗은 위로도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인생을 살다보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또한 사회적인 형편들로 인하여 인간관계의 파괴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주님만을 상대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으로 찢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세로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레마를 통해서 만드시 위로하여 주십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코로나 19의 위기가 주는 고통에서, 경제적인 힘 닢과 특히 일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분노감마저 들게 하는 나라의 현실로 인하여 그리고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상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치유의 은총을 가까운 미래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